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부처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어

☞ 15면에서 계속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고 드는 모든 생각을 나의 근본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내 안의 모든 의식들에 감겨져 있는 습과 업을 녹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어떤 죄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권 국가는 왜 후진국인지

문 어째서 불교권 국가들은 후진국이고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 잘사는 선진국일까요? 전에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는 잘 살고 다른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못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정말 티벳, 태국 등은 못살고 국력도 너무 약해서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발언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이왕이면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문명도 탁월하고 물질문명도 발달한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 어떤 일에서건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계에만 치우쳐 판단을 한다면 폭넓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국가에 관한 문제도 개인의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만이 늘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미묘함이 바로 진리에 관한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버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네 종교·내 종교, 네 종파·내 종파, 내 나라·네 나라하고 찾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사이도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네 종교 내 종교 찾기 이전에, 진리를 탐구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나로부터 나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상대를 알고, 내 가정과 사회를 알고, 국가와 세계를 알고, 그리고 우주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다잡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를 잘 가져오고 잘못 가져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일생이나, 국가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너를 줄테니 가지려느냐, 아니면 금광석 같은 네 안의 진짜 보배를 가지려느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부자라고 으시대고 싶다면 아마 세상의 보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철인 겉요, 한철. 욕심 많은 사람은 한철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철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없어질 것을, 자기 몸뚱이까지도 없어지고 말 것을 왜 그걸 택하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줄 수 있고 영원히 갖출 수 있고 영원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왜 무엇 때문에 한철 잘 먹고 잘 지내면 그만인 것을 택하겠습니까?

깊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데만 우리가 있는 거 아니라 안보이는 데도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들이고 낼 때 보이는 것은 대치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대치를 못해나갑니다. 안보이는 데서 나를 죽인다 해도 대치를 못해나가고 어떠한 막중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치를 못합니다. 뭘 봐야 어떻게 하죠.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전체를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종했더니 배신한 느낌 들어

문 스님, 저는 남편이 다니자고 해서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좋기는 한데 함께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 꼭 배신을 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로 비유하자면 시발점에서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내리는 데 걸리지 않으면 타는 데 걸리고, 타는 데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데 걸린다고들 하는데 모두 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요.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 그 가운데에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했고, 자유를 자유대로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쓰고 있습니다. 관습에 매달리고 안된다는 데 매달리니 괴롭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데도 끄달리고 내리는 데도 습관적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때가 있으면 묵묵히 차를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는 거지,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견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그 노릇을 어떡하겠습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도는 한마음의 그 심봉은 자유스런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끄달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나오는 일체의 생각을 나의 근본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나의 관습과 사량으로 '이건 맞다 그르다, 이건 부족하다 적합하다.' 하고 판단하고 따지다가 보면은 마음의 길을 한 발자욱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양심에 걸린다,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씀씀이와 올바른 행동 그런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진실한 말을 잘하고, 조건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면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구정물을 새 물로 갈아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모든 것을 근본에 진실로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림 · 최주현

일체를 나와같이 생각하십시오
내모습 내마음 같이 생각하고
위로 보지도 내려 보지도 마세요

단 수련중 더이상 진전 안돼

문 저는 단전호흡을 수련하는 수행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식사와 수련을 합니다. 수련과정중 제가 겪었던 일을 몇 자 적고 저의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수련을 하러 가는데 온몸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느껴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책에서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변화가 더 있고 나서 저는 온몸이 저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양 엄지손가락으로 반듯이 엎드린 상태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수련을 하면 몸이 떠 앞으로 3~4 미터를 가곤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수련을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가 우주의 핵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욱더 정신을 집중하여 단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때론 지금이다 하고 더 집중을 하여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듯 싶습니다. 저는 온몸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의 몸에서 밝은 빛이 느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알려주십시오. 저는 교만하지 않고 찾고자 합니다. 어렵사리 이 글을 띄웁니다.

답 단전이라는 것은, 몸이 변해서, 돌아가는 몸뚱이에 기를 한데 모으면 피가 맑아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 깨우침에 있어서는 일체 만법을 다 카바하고 증득하고 물리가 터져야 하는 공부인데, 이 몸 하나 어떻게 해보자고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는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수련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기력도 없을 때에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난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기가 생기는 거죠. 기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거죠.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간다면은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그것도,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를 하나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꿴 그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아예 그건 차라고 할 수도 없죠? 차가 굴러가는 것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되고 말이죠.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은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이 생각 안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이 마음 공부가 엄청난 공부입니다. 몸만 단련시켜서는 이 통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몸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 '나'부터 알아야 그 모든 물리가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을 허술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모른다는 나로부터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진짜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소한 질문 삼갔으면…

문 마음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은 신도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신행생활 속에서도 마음공부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많은 대중을 위해서 법문을 하실 때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방에서 새벽 차를 타고 올라오신 신도님들도 많은데 자신의 사소한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법회 중에 스님께 질문드리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서 '저런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을 돌려야 할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어떤 것을 남이라고 밀쳐 내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 같이만 생각해라, 높다고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낮다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한 것이며 생명이 있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佛)이니 이미 그 속에 포함돼 있죠. 그리고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敎)이며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나, 즉 말하자면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든 높든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다고 남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아니 되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떠한 걸 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을 가다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를 봐도, '허허, 저런 모든 생명들이 아니고 저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배웠을까, 어떻게 저런 게 있는 줄 알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다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남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한 행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뜻을 가지며, 그 진실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이 전부 둘이 아니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높은 뜻을 올바르게 알아 실천궁행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종교가 둘 이상인데…

문 저는 무엇을 믿든지간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집 안에서 종교를 하나로 믿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한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자꾸 개종하기를 강요하는데, 과연 한 집 안에 종교가 둘 이상이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요?

답 지금 내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마음을 넓혀서 살아보자, 그럼 내가 얼마만큼 넓어지나, 이 세상에는 나무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아주 미끈하게 보기 좋은 게 있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게 있고, 벌레가 먹어서 썩은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이라고 이름을 붙힌 거죠, 푸른 산이 조화롭다구요.

그리고 사람도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마리아를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기 자신 안으로 찾으라는 거죠.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이다 기독교다 하고 나누지만 이름이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불교는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근본은 아니죠.

우리들은 제각기 주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변소에 갈 때나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부처는 있으니까요. 변소에 가서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요.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다녀도 사고가 없이 다니게 할 수 있어.' '오늘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든 것이 잘되게끔 하는 것은 너밖엔 없어.'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입니다만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속상하다고 해서 자식의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는 겁니다. 관해서 입력이 됐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종교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시고, 불교니 기독교니 하는 것은 다 상표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걸리거나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지혜를 얻고, 알고, 나라는 존재를 안다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 법 아님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